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임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6대 이화여대 학장의 두번째 편지
- 기금 관련 기사
-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성탄 맞이 행사

05 학생소식

- 국가고시 실기 응원
- 신분증 목걸이 전달
- KAMC 미래의학캠프를 다녀와서
- WCC (White Coat Ceremony)
- 제11회 한국의학도 수필 공모전 수상
- 의학과 1학년 김민영 학생 인터뷰
- 본과 4학년 김지아 학생 선택실습 인터뷰

10 기획기사

- '이울진료회' 제6회 농촌재능나눔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인터뷰
- 간암 AI 모델개발 김희영 교수님 인터뷰

12 특집기사

- 정구영 교수님 우즈베키스탄 의료선교 인터뷰

14 동문소식

- 전효주, 이지은 전공의 (9기) 인터뷰
- 정인숙(37기) 학생연구기금 기부 인터뷰

16 교수소식

- 교수수상 및 업적
- 신입 교수
- 정년 퇴임 교수

19 의과대학 기금안내

대학소식



26대 이화여대 학장의 두번째 편지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들께.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두 번째 편지 올립니다. 지난 학기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이라는 막중한 책임 안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정비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
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과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가
장 시급한 것은 재원 확보였습니다. 때로는 먼저 제안해 주시고, 쉽지 않은 요
청에도 흔쾌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놓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은 Great EUMC²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 네 가
지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교수 사용자 맞춤 교육 시스템 구축
으로 효율적인 교육지원체계를 갖추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통합관
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의학교육의 선진화를 주도할 이화의학교육센터를 2022
년 4월에 설립합니다. 둘째, 융합연구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3대 분야(빅데
이터·인공지능, 줄기세포·재생의료, 웰에이징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연구소 신설, 의과학연구소 산하 연구센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특수대학원
(Ewha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Medi-Tech Convergence
: EMTC)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이화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
를 구축합니다. 셋째, 의과대학 발전계획의 현실화를 위한 기금마련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 2021년 2학기 동안 동창, 교원, 기업의 후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발전을 모두가 염원하고, 힘을 보태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기부는 학교 발전계획인 '이화비전 2030+'의 핵심인 연
구중심대학 위상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조직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수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성원과의 소통
과 직무 분석 및 협력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비와 기금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학 최고 배움의 전당, 의학 최고 연구의 장, 최고 자존심이 되는 Good to
Great(G2G) EUMC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모
든 과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UMC²: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하은희

“인공지능시대 의학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의과대학 연구·교육역량 강화하고 도약합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 ‘이화의대연구기금’ 기부

하은희 의과대학장(의학 87졸)이 이화의 첨단의과학 및 융합의학 연구 강화를
위해 ‘이화의대연구기금(Ewha Medical Research Fund)’을 신설하고 1
억 원을 기탁했다. 새로운 기금의 1호 기부자인 하은희 학장은 “이화에 재직하
며 어린이 건강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드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이화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이화
의대연구기금의 1차 모금 목표로 10억 원을 설정했다. 이화 발전을 위한 의학
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솔선수범하여 기부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
다. 하 학장의 ‘이화의대연구기금’ 후원은 의과대학이 신촌캠퍼스, 목동병원,
서울병원과 함께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역할
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 이화의대 발전기금 기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해 ‘의료계 단체행동’을 계기로 모인 기금
4400만원을 이화여대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기금을 의학 발전과 후배 의사 양성을 위해 기부한 것은 국
내 병원 전공의 중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최초이다. 기부금은 11월 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금식에서 전달되었고, 기념식에는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김윤환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 박지용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공의협의회가 기부
한 기부금은 지난 해 의료계 단체행동 및 파업 당시 강서구의사회, 양천구의사
회, 이화여대 의과대학 출신 동문들이 전공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모아
준 기금이다. 박지용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협의회 대표는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준 높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 임상과 연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하은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장은 “의료 현장에서 배우고 연구하느라 밤낮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
들이 후배들을 위해 국내 병원 최초로 이러한 멋진 결정을 해준 것은 감동 그 자
체”라며 “전공의협의회와 고마운 결정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더 바르고 실력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씨젠의료재단, 이화의대와 이화의료원에 연구장학교육기금 기부



11월 24일(수) 아령당에서 열린 '이화여대 이화의료원 공동주최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기금전달식'에는 김은미 총장, 신경식 대외부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본교 주요 보직자와 씨젠의료재단 천중기 이사장, 한국섭 대표의료원장 및 이선화 의료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씨젠의료재단은 이화의대에 '이화의대연구기금(Ewha Medical Research Fund)' 1억 원과 '씨젠의학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이화의대뿐만 아니라 이화의료원에도 이대서울병원 'HuBIG(휴먼정보융합)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기금 3억 원을 후원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씨젠의료재단은 앞서 2020년에도 이대목동병원 동물실험실 재구축기금 1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씨젠의료재단과 이화는 오랜 인연 속에 동반 성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년 씨젠의료재단의 후원으로 리모델링된 목동병원 동물실험실이 연구에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데, 이번 교육센터 구축 기금 후원을 통해 융복합 메디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기금 전달 외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본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화의 안전한 캠퍼스 사업에 적극 동참·지원해 주기로 약속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사단법인 심혈관연구원, 이화의대연구기금 후원



사단법인 심혈관연구원(이사 장양수)은 11월 24일(수)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을 통해 이화의대에 '이화의대연구기금(Ewha Medical Research Fund)' 1억 원을 후원했다. 2021년 10월 신설된 의과대학 '이화의대연구기금'은 첨단 의학 및 의과학 연구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연구센터 및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유망 선도연구팀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이번 심혈관연구원의 1억 원 후원은 이화 의학 연구 도약에 힘을 실어주었다. 기금전달식에서 심혈관연구원 장양수 이사는 "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관상동맥 CT의 임상연구가 절실하다"며 "이화가 관상동맥 CT를 사용한 심혈관계 질환 치료의 메카가 되어 유의미한 데이터 축적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감사인사와 함께 감사장을 전달하고 "산업-학교-병원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오늘의 기부가 촉매제가 되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본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이화여대-SCL, 공동연구 협약 및 연구기금 전달식 가져



12월 17일(금) 교내에서 공동연구 협약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내 최초 검사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자리 잡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의대에 '의과대학연구기금(Ewha Medical Research Fund)'을 후원했다. 향후 양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 인력교류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류 증진과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연구기업간의 공동 연구 지향이라는 산학협력 의미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건 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오혜숙, 피상순 동창, 첨단 의과학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



▲ (왼쪽부터) 피상순 동창, 김은미 총장, 오혜숙 동창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오혜숙 동창(의학 78졸)과 피상순 동창(의학 84졸)은 11월 30일(화) 첨단 의과학연구와 인공지능 시대의 의학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모교 의과대학에 기부했다. 오혜숙 동창은 신촌캠퍼스, 목동병원, 서울병원과 함께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성에 사용될 '이화Medi·Healthcare 클러스터 기금'과 '오혜숙의학장학금'에 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후원했다. 오 동창은 "이화를 통해 의사가 되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언젠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고 후배들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남겼다. 피상순 동창은 이화여대 발전계획 실행의 밑거름이 될 '이화 2030+ 발전기금' 및 '의과대학발전기금'에 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피 동창은 "이화여대에 재학하며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장학금도 받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며 "이화로 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기부 소감을 전하고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887년 설립된 '여성을 위한 최초의 병원' 보구녀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동창들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미래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할 의학인재 육성과 첨단의학 연구 심화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정미라 동창, 의학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정미라 장학금)



지난 10월에는 정미라 동창(의학·83졸)이 의과대학 후학 양성을 위해 '정미라 장학금' 1억 원을 후원했다. 정 동창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받아 기회가 되면 갚겠다고 생각해오던 중 후세대를 키우는 일에 쓰고자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계속 기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의과대학 교원들의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후원도 활발

의과대학 소속 교원들의 후원도 활발히 이어지며 이화의 의학 및 의과학 연구·교육 역량 강화와 마곡 벨리-글로벌 바이오헬스 및 제약기업-산학협력단-병원 협력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1학년도 2학기에는 김영주, 문병인, 백희정, 이레나, 차은숙 교수가 의과대학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후원하였으며, 이는 학교 발전계획인 '이화비전 2030+'의 연구중심대학 위상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석학 초청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9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의 Andreas Maier 교수님을 초청하여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한승호 휴먼정보응용사업단장님의 오프닝과 하은희 의과대학장님의 초대말씀, 그리고 권오란 BK연구단장님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엘텍공과대학원 컴퓨터의학과 시스템융합헬스전공 김기현 강연자님이 'Deep learning model for prediction of recurrenc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 점을 나누자면, 비소세포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은 폐암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유형인데, 절제술 후에도 암세포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고 전이에 의해 높은 재발률을 보이게 되어 재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존률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TNM staging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종양의 크기, 결절의 유무, 전이 여부에 따라 병기를 구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종양 크기 측정에는 사람의 실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결절 유무와 관련된 기준에는 명확한 서열 순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병기에 속하는 환자들도 절제술 후 재발 발생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NSCLC 환자의 조기 재발을 예측하기 위해 치료 전 CT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심층 영상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접근 방식은 머신 러닝 기법에 비해 여러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성공적으로 종합하여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의과대학원 컴퓨터의학과 시스템융합헬스전공 강채원 강연자님이 'Deep learning-based automatic sleep staging and clinic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다. 여기서 sleep staging이란 진동수 패턴을 이용해 얼마나 깊거나 얇은 잠을 자는지를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빛 공해와 교대 근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면 분석 장비가 비싸고 불편할뿐더러 환자의 움직임 등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수면을 측정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수면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자와 임상 의사가 직접 몇 시간씩 점수를 매겨야 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정확한 sleep staging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 검사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수면 단계를 분류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중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수면 분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마지막 발표는 해외에서 초청한 석학이신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의 Andreas Maier 교수님의 'AI Healthcare Applications in Erlangen'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Depart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 Biomedical Engineering(AIBE), 그 후 Pattern Recognition Lab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 연구실에서는 주로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및 데이터 처리, 음성 인식 등이 주된 연구 분야라며, 이후 딥러닝을 이용한 최신 기술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 발표를 통해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보청기의 작동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CT 사진을 이용해 Image Reconstruction을 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을 이용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딥러닝을 접목시켜 기술의 정밀성을 개선해나가는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정보기술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뜻깊은 세미나였다. 본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본교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의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교수님의 최신 기술 소개로 최근 연구 동향을 알아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의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두 분야 모두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의학관 성탄 맞이 행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기 예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하고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을 개최하였다. 하은희 의과대학장과 행정실 담당자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성애 교무부학장, 정혜선 교무부차장, 박미혜 학생부학장, 우소연 정보관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이화성탄의 집'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빛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최문영 원목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생계유지가 어려워 택배나 신문배달 등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사역자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하였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전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학생소식



국가고시 실기 응원



지난 8월 31일, 하은희 의과대학장, 박미혜 학생부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은 의사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만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쿠키박스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행림원 76주년 기념 의학과 신분증 목걸이 전달



지난 10월 15일, 행림원 76주년을 기념하여 하은희 의과대학장과 정성애 교무부학장은 본과 1, 2학년 학생대표를 만나 신분증 목걸이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은희 의과대학장과 정성애 교무부학장은 학생들에게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에 힘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전하였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학생소식



KAMC 주최 '미래의학 여름캠프'를 다녀와서



7월 21일~7월24일 구미에서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주최로 열린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 캠프>에 본교 의학과 2학년 윤현상, 안이경 학생과 의학과 1학년 권나현 학생기자(이하 학생기자)가 참가하였다. 위 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의 의사 및 의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 의대생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화여대에서는 KAMC 미래의료TF 한재진 위원장, 박영미 교수가 교수진으로 참가하여 개회사 및 격려사를 통해 KAMC 차원에서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고민하는 미래의학교육의 방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3박4일 내내 학생들이 이 캠프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식의 반감기'에 의하면, 수학이나 물리학의 지식의 반감기가 대략 10년이라고 한다면, 의학은 5년에서 1.5년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중이며, 과학기술의 경우 6개월도 안된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시시각각 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캠프를 다녀온 후, 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의학과 1학년인 학생기자의 입장에서 고민해보았다. 우선, 무엇보다도 의료인으로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미래의학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번 KAMC 미래의학캠프는 이 두가지 목표에 대하여 크게 'AI를 통한 의료영상'과 '유전체 분석'이라는 주제를 접목시켜 진행되었다. 첫째로 'AI를 통한 의료영상'의 경우 maxillary sinusitis X-ray 사진을 분류하는 CNN 모델을 테스트해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화소의 X-ray 이미지파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전처리한 후, Deep Phi라는 의료플랫폼을 활용하였다. 군을 나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모델 학습 후 테스트를 통해 AUC 결과값 및 Grad-CAM(Gradient-weighted CAM)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실무자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여기는 전처리과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두번째로 '유전체분석'에서는 안전이위험도가 높은 환자군과 낮은 환자군에 대하여 생존분석 실습을 진행하였다. 또, 방대한 암환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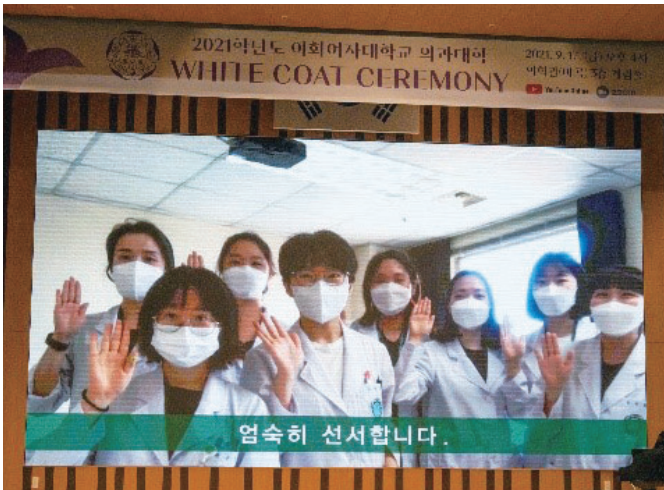


이터셋에서 유전자발현정도를 비교하며 그 과정에서 R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이번 실습은 첫번째 실습과는 달리, 컴퓨터 언어를 직접 다루므로 아직 의과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낯설 수 있다는 어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암이나 유전체분석같이 큰 데이터셋을 다룰 때 연구실에서 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코드와 결과값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배움에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남은 캠프일정 동안에는 '미래의학과 첨단기술'(이화여대 남양희교수), '현대의학에서 미래의료 가는 길'(서울의대 나상훈교수), '헬스케어는 어떻게 의료가 되는가'(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등의 특강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캠프를 마친 후, 다른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통계를 현재 연구 트렌드에 맞게 적용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윤현상·의학2), "기대만큼 실제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 끼니 식사도 너무 맛있어서 즐겁게 임했던 것 같다"(안이경·의학2)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의과학 심화연구 지도교수로 참여했던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참가한 지도학생들이 본 캠프를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적용해볼 수 있었음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첨단 융복합의료시대에 걸맞는 인재로써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 연구와 더불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의과대학, 2021학년도 2학기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개최



의과대학(학장 하은희)은 9월 17일(금) 오후 4시 마곡의학관 계림홀에서 2021학년도 2학기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하였다.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란 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교수나 의료계 선배들이 의사의 상징인 흰색 가운을 학생들에게 입혀주고, 학생들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의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었던 본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요 내빈과 교수진, 본과 3학년 학생대표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표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과 학부모 및 지인들은 실시간 송출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석하였다. 행사는 안선희 교목실장의 성경 봉독 및 축사로 시작하여 의과대학장 환영사, 의무부총장 축사, 동창회장 격려사가 이어졌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환자의 아픔과 회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생명을 경중하는 책임감을 가지길 소망한다며, 특히 협동력을 갖출 것을 조언하며 격려하였다.

이어 유경하 의무부총장은 "이화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학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와 최초의 간호사를 탄생시켰으며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여러분의 병원"이라며

환영했다. 성시열 의과대학 동창회장은 이화정신인 이웃사랑,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담대하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동창회의 응원을 약속했다. 착의식에서는 하은희 의과대학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성시열 의대 동창회장이 단상에 오른 대표학생 세 명의 가운 착복을 도왔다. 대표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착복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행사 이전에 인원을 나누어 미리 촬영한 착의식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전주경 학생대표가 학생의사윤리선언문을 낭독하며 "예비 의사인 의학도로서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고 선배의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상실습에 임할 것"을 서약했다. 행사는 박영미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한 축주에 이어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체 제작한 기념 영상 시청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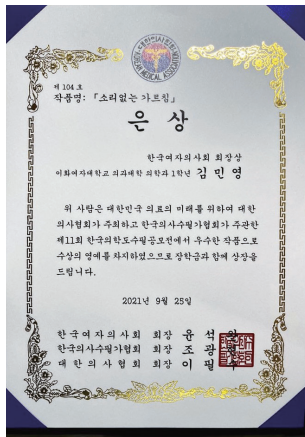
방역 지침으로 79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학생들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으고 실습 조별로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를 축하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기념 영상을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실습을 하고 있는 동기들과의 추억이 담긴 학교생활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상실습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행사는 안선희 교목실장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화이트코트를 수여 받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지난 1월부터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진료현장에서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중심의 임무수행 현장을 경험하고 그동안 배운 의학지식을 적용해보며 각종 술기와 현장지식, 의료 윤리 등 실질적 임상능력을 키우게 된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기자,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의학과 1학년 김민영 학생- 제11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은상 수상 '소리 없는 가르침'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에서 의학과 1학년 김민영 학생이 은상(한국여자의사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소리 없는 가르침>으로, 의학과 1학년 1학기에 겪었던 첫 해부학실습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교훈들을 글 속에 잘 담아냈다.



Q 김민영 학생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에 부족함을 느껴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심사위원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출품 계기는 바로 제 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꿈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할까 고민해보니 글을 쓰는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든 글을 쓰자'가 제 꿈이 되었습니다. 올해 본과에 진학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저의 꿈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이 수필공모전 공고를 보고, 꿈꾸는 삶을 살던 나를 다시 찾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받고 나니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수필에 잘 담겼다고 인정받는 기분이라 감사하고, 제 꿈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Q <소리 없는 가르침>제목에서 알 수 있듯, 첫 학기의 해부학 실습 관련해서 느낀 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단연 이 글에 담긴 부끄러운 그 때였습니다. 3일간 쪽 잠을 자고 시험을 치른 뒤에 공부가 부족한 상태로 해부실습에 들어갔던 날입니다. 결국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관찰할 수 있었던 고관절은 치환술로 인해 뼈가 아니라 금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가슴을 쇠술가락으로 서걱서걱 긁는 것처럼 가슴이 시려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카데바를 'silent mentor'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 또한 그 때 몇 년이 넘는 그 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방대한 공부량에 허덕이던 나날 중에 저는 해부실습을 통해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수필의 마지막 문단에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가르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므로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라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올해 의학과 1년을 보내면서 중간중간 나름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넘기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앞으로 공부는 팔다리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썼던 것처럼 감사함과 책임감으로 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위로와 공감으로 다독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어 잠시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와 노트북 화면에 무디어져 있었는데, 수업도 중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과 때 되었던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같은 길을 가는 동기들과 함께여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기들과 졸업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김지아 선배님께 듣는 코로나시기 선택실습

작년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해 해외선택실습을 비롯한 외부 기관 실습이 취소되기도 하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선택실습 기회가 많이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부실습을 다녀오신 선배님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면 후배들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본과 4학년 김지아 선배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선택실습이 학교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임상실습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학교 실습 같은 경우는 특정 진료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부가 목적이니 다 보니 여러 교수님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달리 선택실습은 서브인턴과 유사하게 특정 교수님의 진료 스케줄을 따라 실습하게 됩니다. 선택실습용 커리큘럼이 따로 짜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습 내용 자체는 학교 정규 실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상실습 같은 경우에는 수술 참관 및 어시스턴트, 회진 참관, 외래 참관 등을 하게 됩니다. 선택실습을 신청할 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세부 전공 분야의 교수님께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습 중에 교수님께 다른 분야도 참관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면 교수님 재량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또한 서울대 산부인과 부인과 교수님 실습을 갔을 때 교수님께 산과도 참관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하루 전체를 산과 실습을 다녀오게 도와주셨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하면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실습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가장 관심 있게 다녀온 서울대 산부인과 실습 중 쌍둥이 자연분만 참관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분만하시는 산모들은 대부분 고위험군 산모입니다. 언제 갑자기 수술로 전환될 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분만 시술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 많아 산모들의 동의를 구하고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쌍둥이 분만의 경우 제왕절개 적응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더욱 적는데, 제가 산과 실습했던 서울대 산부인과 전공관 교수님은 쌍둥이도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이시라 쌍둥이 자연분만을 참관할 기회가 많아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실습을 다녀오게 된 것은 교수님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목수술을 받았던 교수님께 실습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반가워 하시며 백방으로 도와주셔서 그 병원 최초로 외부학생 신분으로 실습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 선배님이셔서 더욱 반겨 주시며 정말 의욕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교수님 후배가 되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웠고 흔치 않은 수술 참관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Q 6주의 선택실습 기간을 본인이 직접 계획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유익하게 실습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기관 외의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선택실습은 전공의 지원 전 직접 다른 병원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병원 외에도 다양한 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그 기회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주 간의 실습 기간을 보통 2주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실습 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고 궁금한 곳을 선택하기도 하고, 추후에 진로로는 선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본과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할 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선택실습은 다른 병원의 시스템과 환자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주 이상은 꼭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과 과에 지원하여 인턴 생활이 어떨지 미리 경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를 선택할 때에도, 선택실습 기간이 보통 마이너과 실습 전인 본과 3학년 방학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 한 메이저과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실습을 돌기 전이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이너과 학교 정규 실습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마이너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선택실습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이너과의 경우에는 2차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중증 환자 위주인 대학병원에서는 흔치 않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참관할 기회가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기업병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약 선택실습 기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민된다면 서브인턴을 통해 경험해보고 선택실습 때는 서브인턴을 받지 않는 다른 대학병원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이외에도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데, 각 분야에서 의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사가 환자 진료 외에 병원 밖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스타트업에서는 관련 논문 분석 등의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다른 전문 의사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 선택실습 기간 내에 제 1, 2 저자 급의 우수한 논문을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 학교 랩로테이션이나, 학기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서 외부 기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외부 기관 실습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막막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지원 과정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병원과 세부 전공을 정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 선택실습 요청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용기 내어 연락 드려보세요.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는 선택실습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선택실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MOU를 체결한 학교를 방문하는 방법과 직접 원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승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를 선택하여 가기도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실습 자체가 몇 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코로나 시기에 실습을 하셔서 특별히 힘들셨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A 해외선택실습이 전면 취소되었던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이 없던 때라 정상적으로 선택실습 기간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직하는 것 외에 해외에 체류하며 해외병원을 경험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경험이라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터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해외실습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면 본과 4학년 2학기 때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습 학점으로 인정받지는 못 하지만, 정말 해외병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보다 환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국시 준비로 바쁜 신 중에도 후배들을 위해 시간 내어주신 김지아 선배님의 진솔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기획기사 | 이울진료회 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인터뷰



이화여대와 서울의치대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 '이울진료회'가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민식)가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울진료회는 42년간 매년 방학마다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를 찾아 농촌 지역 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수상을 하였다. 이울진료회 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수 학생(이화여대 본과 3학년)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울진료회의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21년도 57기 회원을 모집한 이울진료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연합 진료 봉사 동아리로, 1965년 대학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사랑과 평화의 이념으로 인간의 건강권에 이바지하고자 함의 이념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고정된 장소 없이 여러 의료 취약 구역을 다니며 진료 봉사를 진행하다가, 1979년 10.26 계엄령으로 대학생들이 휴교를 하게 되면서 의대생으로서의 재능을 살려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나서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농촌재능나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12기 선배님들께서 평창군 방림면을 찾게 되었고, 그 뒤로 매년 방학마다 방문하여 계절 진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저희 단체의 지도 교수님께서 방림면 계촌 3리의 명예 이장으로 선정되실 만큼 방림면과 계속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이울진료회의 활동 이념과 자세한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울진료회의 활동 이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진료를 위시한 의료 지원을 한다. 둘째, 예방 보건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의과대학생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와 지역사회 보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로 개선방안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 유대를 강화한다. 이울진료회의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창신동과 성동구에서 하는 주말진료 봉사와 방학마다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계절진료가 있습니다. 예방보건활동, 진료활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예방보건국에 예방보건활동을, 진료국이 진료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방보건활동으로 의료 취약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맥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건강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말벗이 되어드

리고 일손을 돕기도 하고, 반찬 및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활동은 이울진료회 출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 계획에 따라 의약품 처방, 수액 치료, 물리치료, 만성 관절 질환 주사 및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이울진료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저희 덕분에 건강히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한 주민 분께서는 그 분이 어린 시절에 예보활동을 나온 이울진료회의 회원을 통해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여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고, 덕분에 30대가 지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주민 분께서는 아직도 그 선배님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저희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오랜 기간 단체를 유지해오면서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으셨나요?

A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재정 측면이나 인력 면에서는 항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학생 회원들 역시 동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대표를 꾸리거나 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그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운영되어 왔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팬데믹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 스스로 자체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집합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매우 커서 봉사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동 감소로 인한 회원들의 소속감의 저하가 걱정되는데, 특히 코로나 세대에 입학한 후배들이 동아리를 이끌어갈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울진료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료 봉사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의료인으로서 의료 취약 구역이 감소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때에도 이울진료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Q 향후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A 일년에 두 번이 아닌, 더욱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 첫 번째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 팸플릿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교육해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읽기 쉬운 팸플릿을 제작하여 그것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예보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전화나 화상 회의를 통해 조금 저 자주 안부를 여쭙 수 있다면 일 년에 두 번의 계절진료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꼼꼼히 관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혼자 사시는 주민 분들께는 저희가 방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쁨을 더 자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 의료봉사 동아리 대표로서 후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이울진료회에서 활동하며 우리 나라에도 아직 의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분들을 돕는 것이 의사들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이화여대에는 현재 이울진료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많은 후배님들께서 의료봉사 동아리에 함께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기획기사 | 간암 AI 모델개발 김휘영 교수님 인터뷰



본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암발생 예측 모델인 'PLAN-B'를 개발하였다. AI 정밀 의료 솔루션 개발과제인 '닥터앤서 2.0'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구논문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to predict hepatocellular carcinoma risk in Korean and Caucasia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은 세계적 권위 학술지

〈Journal of Hepatology(IF = 25.083)〉 온라인판에 10월 1일(금) 게재되었다. PLAN-B모델의 경우 기존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고, 동서양의 대규모 환자데이터가 활용된 만큼 더욱 구체적인 간암위험도를 제공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성B형간염과 간암의 예측과 대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데, 앞으로의 환자개인특성에 맞는 진료와 환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교수님께서서는 예전부터 예측 모델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통계 기반 연구들과 인공지능 예측 모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개별 맞춤 의학 관점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갖는 장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기존의 통계학적 분석법에 기반한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와 같은 간암 위험에 관한 예측 연구라면 대체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코크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찾아낸 유의한 위험인자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그 합을 가지고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높다와 같이 위험도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론은 선형적인 비례위험의 가정을 벗어나는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초래되는 간암의 위험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모형은 대규모의 임상데이터를 이용한 복잡한 계산과정을 통해 위험요인과 결과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한국인과 코케이시안 인종의 데이터셋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baseline이 다른 두 집단에서 같은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각 인종의 다른 생리학적 문화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인종별 모델을 다르게 잡고 각 인종별 예측도를 높이는 방법이 더 personalized medicine(맞춤의료)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이미 여러 간암 예측모형들이 있었지만 널리 사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집단에서 외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종뿐 아니라 지역별로 B형간염의 유전자형이나 전파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형이 다른 인구집단에서도 예측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유용성에 대한 외적 타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서양의 코호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Q 예측 모델 외로도 연구 결과로서 HBV 환자분들 중에서 HCC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룹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도출되었으며, 어떤 임상학적 의미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A B형간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간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데는 정기적인 간암감시검사(surveillance)가 필수적이지만, 전세계 모든 환자들에서 평생 감시검사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치료를 하면서 간암 발생률이 5년 이상 0%에 근접하는 최저위험군(minimal risk group)을 찾아내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교수님께서 전망하시는 의료 인공지능의 미래와 연구방향에 대해 여쭙습니다.

A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임상에 접목한 연구를 이제 시작한 단계이므로 깊은 통찰을 제시할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만, 기존의 연구방법론으로 찾을 수 없었던 병태생리, 진단, 치료 등 각 영역에서 향후 주된 방법론이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저도 활발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Q GBM(Gradient Boosting Machine)을 통해서 nonlinear tabular data에서 risk group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각 risk group 내에서도 HCC risk가 고루 분포하는지에 대한 backward explanation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 외에도 데이터가 각 risk group별로 수가 다른 경우에 data bias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각 risk group은 prespecified criteria에 따라 high/intermediate/low/minimal risk로 나눈 것이고, 본 모형은 해당 그룹에서의 discriminant function 뿐 아니라 관찰값과 예측값에 대한 calibration function 역시 우수하였습니다. Data는 각 그룹별로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특히 검증 코호트에서 사건(event)이 너무 적게 일어나면 모형 개발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서양의 검증 코호트에서도 충분한 event number가 확보되었었기 때문에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특집기사 | 정구영 교수님 우즈베키스탄 의료선교 인터뷰



이화여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정구영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EMC(Ewha Medical Care) 활동과 국립아동병원의 건립 자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의료 선교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화의료원의 의료 선교 활동과 정구영 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과대학 방윤지(의학과 3학년), 이은우(의예과 2학년) 학생이 정구영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Q 이화의료원의 의료선교의 역사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선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대서울병원 건립하며 보구녀관을 복원할 때에도 구성원들 모두 외관의 복원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정신의 복원이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보구녀관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의 소외된 자, 특히 핍박 받는 여성들에게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며 그러한 선교적 정신을 가장 의미 있게 유지하고 있는 활동이 EMC입니다. EMC(Ewha Medical Care)는 1989년 이화의대 졸업생인 네팔인 사꾸라 라즈반다리의 요청으로 처음 네팔에서 시작된 해외봉사활동으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다녔었으며 2001년부터는 선교적 목적을 띄게 되었고 2012년 이화의료선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센터장 김혜순 교수)라는 의료원 산하 공식 조직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는 EMC 활동을 비롯한 이화와 관련된 선교 지원 및 비전세미나와 같은 기독교 행사를 주관하고 기독교 병원 모임·기독교 의사 회 모임 등에 참여하여 이화의료원이 기독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현지 대학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형태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차관으로 지어지기 시작해 2020년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의 건립 초기부터 제가 자문관으로 현지 파견되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곳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에 제안하여 이화 Charity fund를 개설하게 되었고 비전세미나를 통해 지난 9월에 발족되었습니다. EMC와 이화 Charity fund가 이화의료원의 가시적인 선교활동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Q 의료선교가 선교적 측면에서 갖는 의료봉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교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신 개인적인 계기에 대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선교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기반한 봉사활동에서 나아가 기독교적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 선교 역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에서 나아가 의학적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님 체험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자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었고 그 직후 선교를 시작하여 EMC를 담당하시던 이근후 교수님의 퇴임 이후 EMC를 맡게 되면서 EMC를 선교 중심의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있으면서 한국 차관으로 지어진 국립아동병원 자문관도 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EMC의 구호였던 성경구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 역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이화의 일원으로서 이화와의 접점이 만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어 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도 선택 수업이나 EMC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선교와의 접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교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의료선교를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A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국가의 종교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 탄압이 행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95%가 무슬림입니다. 95%가 무슬림인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혈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선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선교가 중요합니다. 의료적 도움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필요로 하고, 의료라는 도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의료 선교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의료 선교 활동을 통해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점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A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아동병원이 작년 10월 개원하였습니다. 제가 건립 계획 초기부터 기술적 지원을 해왔고 현재도 이화 Charity fund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는 아직 부실하여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아동병원에서는 선천성 질환을 조기 수술하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화 Charity fund라는 통로를 통해 이러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접점이 되어 그들이 이화가 왜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아동병원에서도 크리스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존재가 필수적이고 교회를 통해 지원도 받고 상호 활동도 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조금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무슬림 사회에서 병원 안에 크리스천 공동체가 생겨 그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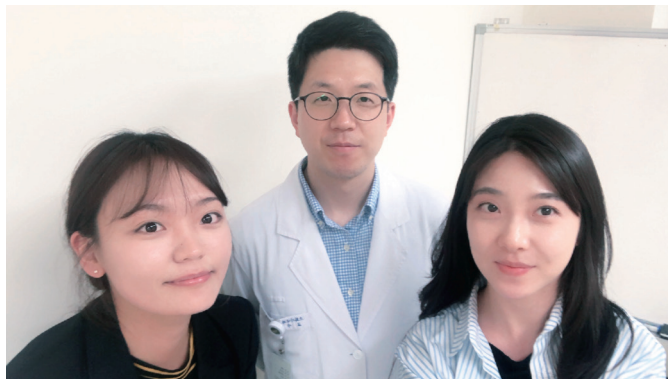
Q 이화여대 의과대학에도 의료 선교와 관련하여 생명과 종교, 의료 선교 수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A 이화의대에는 예과의 생명과 종교, 본과 1학년 때 의료 선교, 그리고 본과 4학년 때 의료와 선교 선택 실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의료 선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선교 선택 실습의 경우, EMC와 같은 봉사활동과 다르게 선교사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학과 관련된 경험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수업과 실습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수업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강연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임할 때 진정으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과 3학년 방윤지,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동문소식 | 전효주, 이지은 전공의(9기) 인터뷰



이대목동병원 내과 전효주 전공의가 지난 4월 16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1)에서 대한당연구학회(KASID) 젊은 연구자 상 (Young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전효주 전공의(이대목동병원 내과 2년차)와 이지은 전공의(이대목동병원 외과 2년차)가 이화의 대 본과에 재학 중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 연구실에서 참여한 논문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참여 열의에 교수님의 열정이 더해져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 장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지난 4월 대한장연구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1)에서 대장연구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논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학생 때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된 논문인데 수상까지 이어져 정말 영광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논문을 썼었고, 현재는 같은 병원 바이탈과에서 수련을 받으며 계속해서 함께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매우 뜻 깊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문 논문명은 <공복 혈당 변동성 및 불리한 궤적 패턴은 현성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의 대장암 위험과 관련성이 있다> 으로 해당 연구는 2002~2007년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성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공복 혈당 변동성이 크거나 불리한 궤적 패턴(공복혈당이 처음부터 높았거나 높아지는 추세)을 가진 사람에게서 대장암 위험성이 높아짐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공복 혈당 변동성 및 대장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상관관계를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남성에서는 불리한 궤적 패턴을 가지거나 공복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대장암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성에게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본 연구는 공복 혈당 변동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대장암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높으며 의의가 있습니다.

Q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님 실습 중에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A 본과 실습 중에 문창모 교수님께서 논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타 학교 의대 학생들도 졸업 전에 논문을 하나씩 쓴다고 하셔서 우리학교도 질 수 없다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thesis 정도만 작성하는 타 학교

에 비하여 논문을 publish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효주 전공의)

논문 내용과 상관 없이 논문 작성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 대장암이 흔한 암이고 제가 가고 싶었던 외과에서도 다루는 질병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었고, 연구 과정과 연구로부터 논문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지은 전공의)

Q 연구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연구주제나 방법은 문창모교수님께서 도와주셨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 및 논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 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파악하여 논문을 풀어 쓰면 교수님께서 여러 번 검토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paper 접수부터는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데이터 정리부터 의학통계, 논문작성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관련 연구가 많이 있는지 논문들을 검색해본 뒤 교수님께 제안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연구 참여가 이후에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신 점과 진로 선택에 앞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연구 참여를 독려해주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구 참여를 하고 난 뒤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도전의식도 함께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임하면 연구를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생겨 향후 대학에 남는 진로도 하나의 선택지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고 일을 시작하면 본인에게 어떤 과거, 어떤 일이 맞을지 매일 고민하는 시기가 올 텐데 연구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면 보다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Q 두 분 모두 바이탈과에서 수련 받는 중이신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귀한 선택하신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둘은 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자 현재는 같은 병원 바이탈과 전공의로서 함께 수련을 받고 있는데 서로에게 귀감이 되며 의지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가장 사명감 높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바이탈과에 흥미가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본인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음에 자랑스러워하며 바이탈과에 지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예과 2학년 이은우 학생기자>

동문소식 | 정인숙(37기) 학생연구기금 100,000\$ 기부 인터뷰



정인숙 선배님은 이화의대 37기 졸업생이시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본교에 학생연구기금으로 총 100,000\$(한화 약 1억 1930만원)를 기부하셨다. 이 학생연구기금 덕에 의과학심화연구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이 이화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6년 인증을 받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학생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큰 금액을 선포 내어주신 정인숙 선배님을 인터뷰해보았다.

Q 선배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 본교에 입학하였고, 이듬해 2월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졸업하자마자 미국 필라델피아로 영구 이주하였으며, 필라델피아의 Kensington Hospital에서 전염병 조정관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필라델피아의 Episcopal Hospital에서 내과 인턴 및 레지던트를 하였고,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Fellowship in Infectious Diseases를 거친 후에 가장 큰 내과 의사 그룹 중 하나에 가입하고 Falls Church에 있는 Fairfax Hospital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99년부터는 내과의로서 개원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KAMA(재미한인의사협회) 회원이자 VA KAMA chapter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Fairfax Medical Society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Annandale Medical Associates, PC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Q 선배님께서 학생연구기금을 기부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학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오랫동안 소원하고 기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학부 시절부터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재진 학장님과 통화하였는데 학장님도 학생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며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Q 선배님께서 기부해주신 학생연구기금을 통해 의과학 심화연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의대 6년 인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는데 선배님의 소감을 여쭙봐도 될까요?

A 작은 불씨 하나로 큰 불을 일으킨 것 같아 맘이 흔쾌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886년 이화를 설립하신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메리 스크랜튼 여사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나라가 없이는 민족, 사회, 가족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학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성과 덕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아내로,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운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학교니까요. 이화는 항상 여러분의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줄 것이에요.

〈의예과 1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교수소식



김선종 교수, 신임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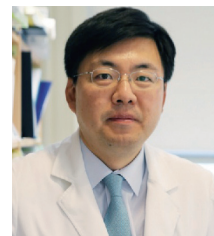
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orean Academy of Osseointegration, KAO) 온라인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그는 임기 중 ▲신규회원이 우리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입회할 수 있는 홍보 및 환경조성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치과임플란트 학계화합을 주도

하고 미래 임플란트 분야를 선도 ▲임플란트 관련업체, 치과계전문지와의 긴밀한 협조 ▲임플란트 마이스터 연수회 전국지부 순회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학술지 편집위원회 정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플란트 학문 발전과 임상 술기 개발 및 선도적 연구와 교육에 힘써 온 전임 학회장과 고문, 임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임기 기간 동안 재미있는 학술활동과 친교를 통해 보다 발전된 학회를 만들 것을 시사했다. 또한 “임플란트 학회로서 임상 의사를 위한 메이저 교육단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여 임플란트 치의학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언택트 시대에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학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 학회 연수프로그램 수료자들이 후학양성,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종 교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선출

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KAMPRS)장으로 선출됐다. 학회는 11월 4일 평의원회를 개최해 김 교수를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학술, 총무이사 등 요직을 거치며 여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1962년에 창립해 존경하는 선학들과 고문님들과 모든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60년의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역사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며 “악안면 영역의 기능과 심미 및 재건수술을 연구를 통해 임상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해외학회들과 성공적으로 교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들 중 하나가 됐다”고 학회 성과를 평가했다. 김 회장은 임기 중 ▲학술대회와 학문 임상 행즈온 공유 분야에서 메타버스(Metaverse) 세계를 고려한 학회의 미래 준비 ▲학회지인 MPRS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의 임기 중 최우선적 SCI 등재 ▲악안면성형재건의 진료영역과 학회 인정의가 진료하는 활동 적극 홍보 ▲학회 주관 연수프로그램 회원 적극적 참여 독려 ▲인정의 교육의 내실화와 평준화 위한 노력 ▲회원들과 상호 소통 및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명 교수 연구팀, MRI 활용 전립선암 조직검사 불필요 환자 선별 기준 제시



▲ 김명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 홍성규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MRI를 활용해 불필요한 전립선 조직검사와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전립선암 진단기준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발표됐다.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김명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홍성규 교수팀은 전립선암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을 조직검사 시행 전 MRI로 선별해 내는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7월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비뇨의학지(The World Journal of Urology, Impact Factor 3.217)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김명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검사 전 MRI 검사를 시행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조직검사가 불필요한 환자를 가려낼 수 있고 조직검사 후에 따르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PHI(전립선 건강지수) 등의 정확도가 우월한 검사를 MRI에 조합하면 전립선암 예측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 교수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 대상’ 수상

이대서울병원 김명 비뇨의학과 교수가 지난 11월 11일 (재)국제언론인클럽과 GJCNEWS가 주최한 제10회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대상에서 의료부문 수상을 했다. 2019년 9월부터 이대서울병원에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비뇨기 종양 분야 연구, 진료, 교육에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 교수는 서울병원에서 재직하면서 총 1,215건의 수술을 중대 합병증 없이 집도하고, 전립선암과 전립선질환 환자 교육을 위한 블로그(<https://blog.naver.com/ewhaurokim>)를 직접 운영하는 등 환자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학술지에 전립선암 및 비뇨기 종양과 관련해 6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한 김 교수는 현재 동물 모델을 활용한 전립선암 예방물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명 교수는 “대학병원의 불모지였던 강서구에서 전공의도 없이 헌신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의 모든 교수진들을 대신해 수상하는 것으로 생각 하겠다”며 “비뇨기 종양 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헌신해 전국 대학병원에서 가장 빨리 수술을 해주는 의사, 전국에서 가장 수술을 안전하게 잘 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은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JCN 논문상 수상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다기관 기획 연구자상'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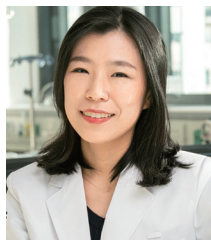


김지은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에서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논문상과 2021년 10월 30일 개최된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기관 기획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JCN)는 SCIE 영문학회지(2020 Impact factor

3.077)로 대한신경과학회는 매년 JCN 게재 논문 중 최근 2년간 타 SCI 및 SCIE 저널에 인용이 가장 많이 된 JCN 논문을 선정해 'JCN 논문상'을 수상한다. 김지은 교수가 JCN에 게재한 'Neurological Complications during Treatment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논문(1저자 및 교신저자: 김지은 교수)은 SCI 및 SCIE 저널에 총 412회 인용돼 관련 분야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지은 교수는 올 10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에서 백신과 관련된 중증 신경계 합병증으로 사지위약을 초래하는 길랑-바레 증후군 및 Parsonage-Turner 증후군(신경통근위축증) 관련 다기관 전국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 선정 및 진행해 '다기관 기획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박진 이대서울병원 교수 'SK 젊은 연구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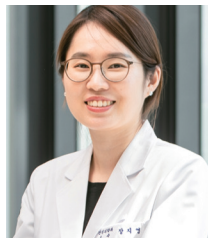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신경계 질환자 진료 위한 연구 매진"



박진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SK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SK 젊은 연구자상은 대한민국 신경과학의 발전 및 지평 확대에 앞장서는 젊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수년간의 연구실적 및 학회 차원에서 공모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진 교수가 발표한 연구계획의 주

제는 연속적 생체신호 데이터와 조기경고점수를 이용한 중증신경계질환 환자의 급성악화 예측모델 개발이다. 박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상을 받게 되어 신경과 의사로서 정말 큰 영광"이라며 "진료와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화의료원의 훌륭한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수상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활동하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제게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대서울병원의 임상통합상황실 등 자원을 이용해 신경계 중환자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웰니스건강증진센터 장지영교수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2021 우수논문상 수상



이대서울병원 웰니스건강증진센터 장지영 교수, 소화기내과 심기남 교수,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팀이 지난 11월 20일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2021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논문상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인 Clinical Endoscopy에 게재된 논문 중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준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장

지영 교수팀은 국내 캡슐 내시경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현성 출혈이 없는 원인 미상의 철결핍성 빈혈환자에서 캡슐 내시경의 효용성 및 재출혈 위험을 분석한 논문(Positive Fecal Occult Blood Test is a Predictive Factor for Gastrointestinal Bleeding after Capsule Endoscopy in Patients with Unexplained Iron Deficiency Anemia: A Korean Multicenter CAPENTRY Study)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지영 교수팀은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을 이화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김지섭 교수,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최우수 연제상 수상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김지섭 교수가 제39차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urgeon-Scientist Session'에서 최우수 연제 발표로 11월 24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는 '중근 팔꿈치 터널 증후군 환자에서 전방골간신경분지 신경이전술 후 결과'에 관한 논문으로 신경이전술 시행 후 내재근의 회복이 가능함을 증명한 내용이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이어 흔한 질환으로 척골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다. 초기에는 새끼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내재근의 위축으로 집기, 파악력이 감소되고, 젓가락질, 단추 잠그기 등의 정밀한 동작이 불가능해진다. 중증 주관터널 증후군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유리술은 치료의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수술법인 신경이전술이 기존에 회복이 힘들다고 여겨졌던 내재근육 기능도 조기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신경이전술은 신경 손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가능한 수술로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보는 것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섭 교수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포함한 모든 말초신경 질환(흉곽 출구 증후군, 손목 터널, 주관 터널 증후군 등)을 신경이전술 등의 최신 수술 기법을 도입해 진료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임교수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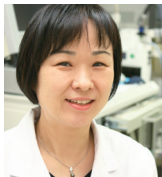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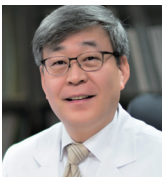
임용일 2021.09.01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류정화	의학과(영상의학교실)	조수범
의학과(내과학교실)	송도경	의학과(영상의학교실)	변지은
의학과(내과학교실)	박소정	의학과(외과학교실)	노경태
의학과(비뇨의학교실)	김명	의학과(응급의학교실)	이재희
의학과(소아과학교실)	심소연	의학과(재활의학교실)	양서연
의학과(신경과학교실)	김건하	의학과(정형외과학교실)	박인

임용일 2022.03.01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송은미	의학과(흉부외과학교실)	신수민
의학과(내과학교실)	조정민	의학과(정형외과학교실)	윤병호
의학과(내과학교실)	정민경	의학과(마취통증의학교실)	오혜원
의학과(소아과학교실)	이정원	의학과(진단검사의학교실)	박설희
의학과(신경과학교실)	장윤경	의학과(병리학교실)	최은오
의학과(외과학교실)	송승환	의학과(미생물학)	홍소희
의학과(외과학교실)	홍경숙	의학과(환경의학)	김이준

퇴임교수 명단

성 명	학 과	퇴직일	성 명	학 과	퇴직일
 최규복	의학과 (내과학교실)	2022.02.28	 정성민	의학과 (이비인후과학교실)	2022.02.28
 김승철	의학과 (산부인과학교실)		 윤태식	의학과 (재활의학교실)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1.07.01. ~ 2021.12.31.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백희정	10,000,000원	피상순	50,000,000원
김영주	10,000,000원	이레나	50,000,000원
차은숙	20,000,000원	이정화	100,000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	43,915,720원	신영숙	11,268,000원
이지태	5,000,000원	-	-

2. 백분익일의나눔장학금 (2021.07.01. ~ 2021.12.31. 기준 약정일순)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달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2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학78졸), 박규희(의학90졸), 박미향(의학90졸), 김병선(의학84졸), 윤석완(의학76졸), 박원아(이화가족), 강예성(의학93졸), 고은희(의학78졸), 권계숙(의학90졸), 권정미(의학99졸), 길지나(이화가족), 김경호(의학83졸), 김광주(의학84졸), 김금미(의학89졸), 김문정(의학95졸), 김민석(의학과교수), 김보경(의학92졸), 김성희(의학87졸), 김수경(의학93졸), 김연선(의학82졸), 김영선(의학94졸), 김영주(의학84졸), 김예미(의학과교수), 김예진(의학93졸), 김우선(의학90졸), 김윤희(의학78졸), 김자영(의학84졸), 김정숙(의학83졸), 김종원(의학79졸), 김지영(의학89졸), 김지호(의학89졸), 김진희(의학61졸), 김태경(의학84졸), 김태연(의학05졸), 김태임(의학74졸), 김한울(의학08졸), 김현영(의학78졸), 김현화(의학81졸), 김혜승(의학78졸), 김혜옥(의학84졸), 김홍희(의학88졸), 김하숙(의학71졸), 남은미(의학93졸), 맹신숙(의학92졸), 문경원(의학02졸), 문규원(이화가족), 문용자(의학61졸), 문인숙(의학78졸), 민정혜(의학93졸), 박경숙(의학86졸), 박경화(의학84졸), 박미연(의학89졸), 박보영(의학05졸), 박선옥(의학74졸), 박성희(의학82졸), 박승희(의학89졸), 박원희(의학93졸), 박은미(의학93졸), 박은애(의학88졸), 박재욱(의학75졸), 박정선(의학78졸), 박준범(의학과교수), 박혜숙(의학91졸), 박혜영(의학82졸), 박혜영(의학85졸), 방문혜(의학84졸), 배기선(의학99졸), 배연애(의학00졸), 백세연(의학93졸), 백승연(의학82졸), 백승희(의학82졸), 백혜승(의학89졸), 백희정(의학83졸), 서동혜(의학95졸), 서란(의학82졸), 서시정(의전원13졸), 서의정(의전원15졸), 서정완(의학82졸), 서정은(의학09졸), 서한나(의학10졸), 성시열(의학81졸), 손현주(의학84졸), 손희정(의학89졸), 송선희(의학77졸), 송현주(의학00졸), 신수아(의학93졸), 신정아(의학07졸), 신혜원(의학78졸), 신화자(의학78졸), 심소연(의학99졸), 심현(의학80졸), 안영호(의학과교수), 안혜선(의학84졸), 양나래(의학07졸), 양미혜(의학82졸), 오양자(의학65졸), 오혜숙(의학78졸), 우명숙(의학71졸), 우복희(의학63졸), 우소연(의학96졸), 우재희(의학07졸), 원혜성(의학90졸), 유경아(의학97졸), 유경하(의학84졸), 유금혜(의학00졸), 유동원(의학84졸), 유박영(의학74졸), 유시현(의학95졸), 유신애(의학69졸), 유채섭(의학84졸), 윤명인(의학78졸), 윤석애(의학71졸), 윤소윤(의학07졸), 윤수진(의학90졸), 윤혜원(의학80졸), 이경숙(의학82졸), 이국희(의학89졸), 이귀용(의학78졸), 이남경(의학89졸), 이남희(의학79졸), 이령아(의학92졸), 이명희(의학90졸), 이미애(의학82졸), 이순남(의학78졸), 이순재(의학75졸), 이승희(의학84졸), 이연주(의학90졸), 이영은(의학90졸), 이에경(의학82졸), 이용주(의학77졸), 이윤하(의학91졸), 이은연(의학75졸), 이재욱(의학79졸), 이재욱(의학76졸), 이재현(의학80졸), 이정엽(의학82졸), 이정원(의학98졸), 이종민(의학80졸), 이지희(의학84졸), 이지희(의학90졸), 이진숙(의학78졸), 이향운(의학93졸), 이현주(의학석사07졸), 임석아(의학91졸), 임선영(의학82졸), 임원정(의학89졸), 장은경(의학90졸), 장혜숙(의학75졸), 전영미(의학82졸), 전혜진(의학05졸), 전희경(의학89졸), 정미경(의학84졸), 정민경(의학10졸), 정성애(의학91졸), 정성철(의학과교수), 정수경(의학97졸), 정연정(의학90졸), 정윤희(의학74졸), 정은숙(의학84졸), 정은주(의학90졸), 정인숙(의학77졸), 정주혜(의학97졸), 정지아(의학93졸), 정혜선(의학05졸), 정호인(의학90졸), 조기영(의학02졸), 조영주(의학84졸), 조혜경(의학04졸), 주문희(의학70졸), 주미련(의학74졸),

주재본(의학77졸), 차순자(의학60졸), 채설아(의학96졸), 최옥경(의학90졸), 최원주(의학79졸), 최윤희(의학99졸), 최은경(의학89졸), 최의숙(의학77졸), 최지하(의학01졸), 최현주(의학87졸), 최혜영(의학85졸), 표영희(의학74졸), 피상순(의학84졸), 하은희(의학87졸), 한경원(의학84졸), 한기정(의학89졸), 한승혜(의학96졸), 한지윤(의학75졸), 한혜기(의학78졸), 허금희(의학89졸), 허양민(의학05졸), 허정원(의학92졸), 홍기숙(의학80졸), 황은미(의학01졸)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1.07.01. ~ 2021.12.31. 기준 약정일순)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 기금	정형외과학교실기금	이정준	12,000,000원
	피부과학교실 발전기금	(김명주) 새하안피부과	20,000,000원
	약리학교실발전기금	이윤영	15,000,000원
	의과대학사랑스런기금	이제훈	4,800,000원
	의과대학학생연구기금	정인숙	58,606,666원
	의학교육혁신기금	권복규	1,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하은희	100,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사단법인 심혈관연구원	100,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씨젠의료재단	100,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이레나	50,000,000원
장학 기금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300,000,000원(현금) 200,000,000원(현물)
	문병인의학장학금	문병인	12,000,000원
	바스젠바이오장학금	주식회사 바스젠바이오	10,000,000원
	송인숙장학금	(송인숙) 인터케어내과의원	500,000,000원
	씨젠의학장학금	씨젠의료재단	200,000,000원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	3,900,000원
	연희장학금	(주문희) 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	12,000,000원
	오혜숙의학장학금	오혜숙	5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성시열)장학금	성시열	12,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정미라)장학금	정미라	10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조종남)장학금	조종남	2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피상순)장학금	피상순	13,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 (한영자)장학금	한영자	3,000,000원
	임당의학장학금	재단법인 임당장학문화재단	100,000,000원
본교 발전 기금	이화 2030+ 발전기금	피상순	50,000,000원
	이화Medi·Healthcare 클러스터 기금	오혜숙	50,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사업,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총 약정액 3백만원 미만의 경우 1년간,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경우 3년간 제공합니다.)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이화여대 의대 발전기금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호(10%), 닥터로빈(5%),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경점(10~20%), 푸레쥬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6827,2928,2927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0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령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심성신(정보관리부 차장), 안효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방윤지(의학과 3학년), 권나현(의학과 1학년), 이은우(의예과 2학년), 이예린(의예과 1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l:** 02.6986.6007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의학관(마곡), Esther Building



의학관(마곡) 1층 로비



의학도서관